

# 교실의 혼란... 학생들 학원으로 내몰릴판

### 선행학습 금지법 입법예고...광주 학교·학부모 반응

## 일반고엔 족쇄...자사고·특목고 유리해져 학원가 반사이익...사교육 되레 늘어날 듯

교과 교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9일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입시를 앞둔 고3 교실이 술렁이고 있다. 입시에 맞춰진 교실수업의 과정이 예고되고, 일반고와 자사고·특목고의 불공정 입시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3 교실수업 파행 = 그동안 일선 고교에서는 2학년까지 고교 3년 과정을 모두 가르쳐왔다. 3학년 때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해왔다. 수능에 맞춰 수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선행학습금지법이 적용되면 3학년 1학기에 3학년 전 과정을 끝내야 한다. 이와 수학과목의 경우 그 어렵다는 '적분과 통계'와 '기하와 벡터' 두 과목을 동시에 배워야 한다.

광주의 한 수학 교사는 "그동안 6학기 과정을 4~5학기 분산해 가르쳤는데 4학기동안은 하지 말고 나머지 1학기만 2학기 과정까지 몰아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라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수해서 고4년을 다니든가, 아니면 학원 가서 미리 배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고 족쇄자사고·특목고 유리 =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과학교)가 입시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필수 이수단위가 3년간 77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로 일반고(86단위)보다 9단위나 적다. 자사고는 그만큼 원하는 과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국·영·수 등 수능 주요과목을 고교

1~2학년때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가르칠 수 있어 입시 준비에 유리하다.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광주지역 한 고교의 진로부장은 "안 그래도 심각한 입시 경쟁에서 일반고에는 족쇄를 채우고 자사고·특목고에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국가가 정해주는 필수 이수단위를 자사고·특목고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맞춘 뒤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행학습 금지법 이전과 이후

- 이전  
2학년까지 고교 3년 과정 가르쳐  
3학년 때는 수능 맞춰 문제풀이
- 이후  
3학년 1학기에 1년 과정 끝내야  
어려운 수학 과목 동시에 공부

◇학원가 반사이익 기대 = 광주 학원가는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공교육 위주의 규제를 담은 시행령 덕분에 학원에서 '수월성 교육'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학원에서의 선

행학습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 광고와 선전만을 못하게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학원가는 자유롭게 선행학습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던 학습 진도가 이제부터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므로 수업을 보다 원활하고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광주의 한 학원강사는 "학교마다 교과서는 물론 진도가 달라 학원들은 학교별로 소수인원을 데리고 수업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되는 만큼 학원에서 보다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광주시 남구 공무원들이 10일 봉선동 가로수에 걸려있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낮 1분간 43dB 넘으면 층간소음

### 국토부·환경부 법적 기준 첫 마련...5월14일 시행

아파트 입주인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나 공기전달소음이나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 야간 38dB,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dB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연필뉴스

## 여수시 80억 공금횡령 환수 쉽지 않네

### 12억 이의 은닉재산 발견 못해

여수시청 직원 80억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시가 횡령액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김모(48)씨의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까지 확보한 12억여원 이외에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당시 회계과 직원 이던 김씨는 급여와 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리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상품권 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80억 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시는 지금까지 김씨를 비롯한 가족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방위로 환수노력을 기울여 모두 10억

6000만원을 받았다.

또 최근에 공금이 흘러간 김씨 관련자들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매처분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2억원 이상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김씨와 가족의 현금 은닉이나 매장 가능성 등 숨긴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 횡령공금의 추가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 범죄 피해 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민 제보를 받아 이를 근거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은닉재산 추적수사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순천지청에 파견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구형에 "무죄" 선고 故 윤한봉 38년만에 명예회복

### 강신석 목사 등 4명도

"윤한봉·강신석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1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고법(부장판사 서경환) 301호 법정. 광주지검 서민석 검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하지만, 맞은편 피고인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어 마지막 직술을 들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재심 개시 이후 첫 재판에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지 38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지 38년, 지난 2007년 6월 27일 지방으로 발세한 지 7년 만이다. 수십 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음에도, 너무 늦게 이뤄진 탓에 정작 기뻐해야 할 당사자는 없었다.

박정희 정권 때 발동돼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조항이 박근혜 정부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재심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만인 지난 3월에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도 "법은 제일 마지막에 따라가게 돼 있다"면서 "민주화가 돼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증명됐다"고 밝혔다.

고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장은 '5·18 마지막 수배자'로 5·18 이후 미국으로 망향했

다가 귀국 뒤 '민족미래연구소장', '들불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등을 맡아 5·18 정신 계승 활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신석(75) 전 무안교회 목사를 비롯, 고(故) 조희래 전 무안교회 목사, 고(故) 임기준 장흥읍교회 목사와 조승일(74)씨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뒤 그동안의 피해자들의 힘든 생활 등을 감안, "그동안 수고했다"고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9명 중 46명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18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강 목사는 판결 직후 가족들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늦게나마 바보잡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서술피린 유신시절인 1976년 목포 연동교회에 재직하던 중 유신반대 성명서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5·18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는가 하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을 재판정에 올리게 위해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6·4 지방선거 광주 동구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문순훈 광주·전남민주화운동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4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42명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지름기자 dok2000@kwangju.co.kr

## 민노총 "유덕IC 요금징수원 채용 비리 고발할 것"

민노총이 10일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IC 요금징수원 채용과 관련, 경영기업인 아시아도로관리의 직원이 금품을 받은 제보를 확보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아시아도로관리의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확보해 광주시청과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등에 투서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익명의 제보자가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고 관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이전 채용자는 대부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아시아도로관리의 주주인 교직원공제회·한화·교보 측과 교직원공제회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주택가 몰래 숨어있다 홀로 가는 여성 상습 성추행 20대 딸기



○출근길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 또는 여중생 등을 뒤쫓아가 상습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모(21)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공화 인근 주택가에서 이모(여·25)씨를 보고 뒤따라가 깨어난 뒤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최

근까지 이 일대에서 4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

○동종전과 1범인 강씨는 출·퇴근 시간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몰래 숨어있다가 홀로 가는 여고·여중생 등을 보고 뒤쫓아가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종전과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강씨를 검거.

/최승환기자 srchoi@kwangju.co.k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T.062-228-6330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유르 골목)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NEW 소리큐 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 시청할 때 핸드폰 통화할 때 강의 들을 때 대화·상담할 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층 2층

소리큐보청기

소리큐 보청기 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